



정부 훈포상자 기념촬영. 맨 오른쪽이 은관문화훈장을 추서받은 고 최덕교 선생의 자녀 최애리씨.

제47회 잡지의 날 기념식 故 최덕교 선생 은관문화훈장 추서

‘제47회 잡지의 날’ 기념식이 11월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렸다. ‘잡지의 날’은 근대 잡지의 효시인 육당 최남선의 ‘소년’ 지 창간일(1908년 11월 1일)을 기념해 정한 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잡지문화 진흥에 공이 큰 잡지인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제47회 잡지의 날’ 기념식은 노은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서울 모던양상블의 공연, 기념사, 축사, 정부포상, 제46호 한국잡지언론상, 2012 대한민국 잡지광고상, 감사패, 제5회 전국민잡지읽기 수기공모상 시상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창의 한국잡지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재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장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인철 서강대 교수(한국잡지언론상 심사위원장), 이재호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시중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 등 문화 출판 관계 인사 및 잡지 발행인과 편집인이 대거 참석했다. 이창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국잡지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6·25 전란중 모든 것이 어려웠던 와중

에 우리 선배들이 잡지계 발전과 잡지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난수도 부산에서 협회를 창립했다. 이러한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는 좀 더 나은 잡지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이 되신 전직 회장을 비롯, 잡지계 원로 선배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 잡지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글로벌화하여 문화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잡지를 지식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매체로 국가의 문화적 인프라를 만드는 중요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육성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잡지도 이제 다른 미디어나 문화산업처럼 예산을 마련하고 진흥책을 수립 시행하는 전담진흥기구인 잡지문화산업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창의 한국잡지협회장



축사를 하고 있는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축하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는 김장실 의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축하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는 김재윤 의원



제46회 한국잡지언론상 심사 경과보고를 하는 김인철 심사위원장



수기공모 심사평을 전하고 있는 강대일 수기공모 추진위원회 위원장

은관문화훈장에 한국잡지역사 정리한 고 최덕교 선생

이날 행사에서는 은관문화훈장을 비롯한 정부 포상(14명), 제46회 한국잡지언론상(12명), 2012 대한민국 잡지광고상(3명) 제5회 전국민 잡지읽기 수기공모(29명)를 시상하고 건전한 잡지문화 창달과 한국잡지계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감사패(4명)를 전달했다.

‘은관문화훈장’을 추서받는 고(故) 최덕교 선생(1927~2008년)은 한국전쟁 중 학원사에 입사해 ‘학원’ 편집장을 맡아 청소년들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왔고, 이후 한국잡지 역사를 정리한 ‘한국잡지100년’ (총 3권)을 편저, 잡지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희로애락을 집대성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을 일궈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포장’을 수상한 미술문화원 최광열 대표는 1980년 월간 ‘서예’를 인수, 발행해오면서 서예문화 발전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한중 서예교류전’ 등 각종 국제교류전을 개최함으로써 민간 교류를 통한 서예 문화의 국제화로, 국위 선양에도 기여한 공이 크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미대입시사 남윤성 대표는 1989년 월간 ‘미대입시’를 창간, 발행해오면서 입시미술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미술인의 소양 함양을 꾀하는 동시에 미술의 대중화에 기여해왔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도서출판 한미 김정성 대표는 1994년부터 건축기계설비 관련 국내 유일의 전문지인 ‘설비기술’을 발행해 오면서 최신 기술정보와 관련 업계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우리나라 설비업계 및 전문지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주)아트인포스트 백동민 대표이사, (주)전라도닷컴 황풍년 대표이사, 월간 원예 이주상 대표, (주)에이엠지커뮤니케이션 김진호 대표이사, (주)제이케이커뮤니케이션 강광민 편집인, (주)에센에스미디어 성통렬 대표이사, 한국방송출판주식회사 백종운 대표이사, 미디어경영연구소 주은수 대표연구원, 아름다운청소년(주) 최명철 대표이사, (주)에스엠미디어그룹 이진호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여했다. 한편 제46회 한국잡지언론상은 유공부문에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영부문에 장상원 (주)비앤씨월드 대표이사, 편집부문에 김은령 (주)디자인하우스 편집주간과 이종관 수사연구사 편집장, 기자부문에 이시중 (주)매거진플러스 편집장, 기자부문에 허지나 월간반도체네트워크사 수석기자, 업무부문에 백정희 환경과조경 전문과 천세균 (주)더복컴퍼니 경영기획본부 상무, 광고부문에 광도훈 제이콘텐츠리M&B 부장, 광고부문에 최창식 (주)인포더 부사장, 특별부문에 박대훈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과 박영식 한국사보협회 전무가 수상했다.☞



제47회 잡지의 날 기념식에 참가한贵宾과 수상자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수상자들